

# 한국광학기협회 한국공동관 구성, 국내 8개 업체 참가

## 2003 일본 라보 시스템 전시회



올해 처음 한국광학기협회가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한 '2003 일본 라보 시스템 전시회'는 한층 성숙된 사진시장의 디지털화를 선보인 가운데 각종 디지털 사진장비와 장비 내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큰 성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를 통한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구축할 수 있느냐가 사진관련업체들에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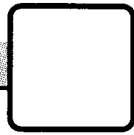


▶ 2003 일본 라보 시스템 전시회(Lab System Show 2003)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2003 일본 라보 시스템 전시회(Lab System Show 2003)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일본 라보 시스템 전시회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5월 펼쳐지는 서울 국제 사진영상기자재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전시회로서 올해는 일본 업체 40개사와 해외업체 등을 합쳐 총 55개 사가 참가하여 카메라를 비롯하여

현상·인화기, 주변기기 및 부속품, 디지털 사진영상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타 사진용품 및 액세서리 등을 출품하여 최근 사진관련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광학기협회와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다미상사 등 국내업체 8개사가 올해 처음 참가하여 일본 시장에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만들었다.



▶ 한국공동관.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업체 40개사와 해외업체 등을 합쳐 총 55개 사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 업체 8개사가 처음 참가하여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계속되는 일본 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시기간 동안 전년 36840명보다 늘어난 총 40279명이 전시장을 다녀가 사진산업에 대한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 사진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의 강세

이 전시회에는 후지필름을 비롯해 코니카, 코닥, 노리츠, 캐논, 소니 등 55개의 제품사들이 다양한 사진현상인화장비와 프로페셔널 사진 기자재를 출품, 각 사들의 신기술을 선보이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출품된 제품의 공통된 특징은 디지털화된 장비와 함께 그 장비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강화하여 프론티어에서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사진작업을 쉽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아직까지는 고객들이 직접 사진관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미지 출력을 주문하고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시스템이 많지만 향후에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온라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가하면 디지털카메라, 휴대폰의 착탈가능한 메모리칩 및 CD 등의 입력매체를 통해 저장된 이미지를 자판기에 입력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진을 편집하여 바로 출력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해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출품되어 디지털카메라 및 휴대폰의 보급률은 사진업계의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DP(Digital-Pronter)기기는 저투자, 고화질 및 간단한 조작을 특성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에 대응하여 출시되는 추세이다.

참가업체별로 살펴보면, 후지에서는 설치면적 1.2평방미터의 콤팩트한 사이즈와 시간당 900매(L사이즈)의 빠른 처리속도를 자랑하는 full-디

지탈방식의 미니랩 'FRONTIER 340E'와 디지털카메라용 기록미디어(메모리칩등), CD, 인터넷 사진파일 등을 자판기에 입력하고 터치판넬을 이용하여 주문하는 현상소 접수시스템인 'FRONTIER JOY',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및 휴대폰 영상이미지를 셀프로 출력하는 자판시스템 'PRINCIAO QN' 등을 전시하여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코니카는 접수시스템, 지점주문, CD-R, 네트워크 주문 등에 대응하여 입출력부를 독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분업화된 DP시스템인 'R1 SUPER'를 전시했다. 이밖에 노리츠에서는 다양한 디지털주문에 대응하는 DRY 프린터 'QSS-2901 DIGITAL'을 선보였고, 미즈비시에서는 디지털솔루션 소프트웨어로 고객의 PC에서 서버를 통해 현상소(DP SHOP)에 의뢰하여 출력하거나, 주문하는 소프트웨어인 'DINO STATION'를 전시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한편, 일본의 현상소에 관한 조사분석 앙케이트에 의하면, 디지털카메라의 컬러사진을 현상할 수 있는 처리기기 (DP, DIGITAL-PRINTER) 보유율이 작년대비 소규모점 위주로 12.4%이상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DP

처리기기의 평균 구입희망가격은 750만 엔으로 전년대비 43만 엔 내려갔다. DP기기의 보급률 증가에 따라 흑백 및 컬러DP현상료는 일본 전국적으로 인하추세이다. 예를 들어 컬러DP현상요금이 L판 1매 기준으로 28엔이다.

### 다 미 상 사 등 국 내 8 개 업 체 참 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업체는 다미상사, 캐리마, 유한기획, 희망개발, 거인부락, 한맥배경, 포토밸리, 코리아나웨딩드레스 등 총 8개사로서 전시기간 동안 상담건수 568건에 금액으로는 1억8000만 엔 이상 규모의 상담과 총 7억 엔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질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캐리마는 기존의 은염 아날로그 미니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디지털 이미지를 사진으로 인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Carima DC-21' 과 중저가용의 100% 디지털 미니랩 장비 'Carima DS-1' 을 출품하며 연일 상담이 폭주하여 170만 엔의 상담금액과 10만 엔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Carima DC-21' 은 특수효과나 배경파일, 합성기능, 옛날 사진 복원 등의 이미지 수정 기능도 장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아날로그 인화기와 인화지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가격 경쟁력 면이나 보관기간 측면에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번 전시출품을 통해 일본업체의 관심을 모았으며, 향후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함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사진 절단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희망개발은 서울 국제 사진영상기자재전에서 첫 선을 보이고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사각버튼머신' 을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 이 제품은 기존의 원형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이미지 창출이 가능한 편리함과 견고성까지 갖춘 버튼머신이다. 희망개발은 전시기간 동안 상담건수만 113건으로 3180만 엔의 상담금액과 1000만 엔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아기자기한 사진열쇠고리를 비롯하여 휴대폰 고리, 차량용 액자, 크리스털 유리액자 등을 선보인 유한기획 부스에는 연일 많은 참관 객들로 만원을 이룬 가운데 전시기간동안 상담건수 127건에 2000만 엔의



▶ 한국 주최 측 실무단(사진 왼쪽부터 한국공동관을 구성·운영한 한국광학기기협회의 김영균 부장, 한일재단의 김창빈 팀장, 산업자원부의 정은영 주무관, (주)캐리마의 이병극 대표)

상담금액과 1140만 엔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사진 배경업체인 한맥배경 역시 연일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는데 상담건수만 203건으로 2100만 엔의 상담금액과 173만 엔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한맥배경은 기존의 사진배경에서 보다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입체감을 살린 배경으로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옵션 베이비 촬영소품도 많은 관심을 얻었다. 이와 함께 촬영세트 및 의상, 각종 앨범과 액자를 출시한 거인부락도 128만 엔 규모의 상담과 99만 엔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초극세사로 만든 각종 클리너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다미상사에서는 카메라를 비롯한 렌즈 및 각종 광학기기 관련 클리너 제품을 단품이 아닌 세트형식으로 묶어 판촉행사를 벌인 결과 큰 호응을 받으며 1억만 엔 규모의 상담이 오고갔으며, 4300만 엔의 수출계약을 이뤘다.

이밖에 사진소프트웨어 업체인 포토밸리에서는 15만 엔 규모의 상담이 오고갔고, 코리아나웨딩드레스는 123만 엔 규모의 상담과 50만 엔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한국업체들의 참여로 일본 내 일반 소비자 및 관련업체들이 한국 상품을 처음 접하고 품질 및 가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부분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한 인상이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업체들은 향후 정보교류 및 거래알선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